



광주에서 남북한 분단과 핵 문제를 다룬 독립영화를 제작중인 조나 윙 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인시장은 삶의 터전... 생존 이야기 최적”

美 독립영화감독 조나 윙 광주 대인시장서 독립영화 '역(Station)' 촬영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국토 대부분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에 몰두하면서 핵 쓰레기가 가득한 지상세계를 버리고 지하세계에 몰려든다. 지하세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따로 없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의 전쟁과 파괴를 막고, 생존하기 위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생활하던 남성이 유일한 시간여행자로 발탁된다. 주인공은 시간 여행을 통해 우선 급한 음식을 조달하기 시작한다.

미국 독립영화감독 조나 윙(29·Jonah Whipp)이 광주에서 촬영중인 그의 첫 번째 독립영화 줄거리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인시장 내 대안공간 '미테 우드로' 레지던시 작가로 입주해 대인시장을 배경으로 영화 '역'(Station)을 촬영하고 있다. 장르는 SF 형식을 띤 단편 실험 영화다.

영화 속 전체적인 배경은 대인시장이다. 출연하는 배우도 전남대 미대 장식원 교수를 비롯해 대인시장에 동자를 쓴 작가, 상인, 시민 등이다.

밀워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필름과 비디오 제작을 전공한 그는 지난 2011년 무작정 한국행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영화제작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과 소재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한국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고, 그것은 곧 영화 소재가 됐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접한 충격적인 뉴스가 북한 핵 문제였어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정작 국민은 그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고, 영화를 기획하던 중 우연히 광주를 방문

했고, 그때 미테 우드로 조승기 대표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영화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미국 소설 팬딩 사이트를 통해 예산을 모았다. 이 기획에 공감한 미국인들이 모두 7854달러의 기금을 모아 투자했다.

이번 영화는 프랑스의 크리스 마르케 감독의 SF영화 '환송대'(할주로·La Jetee)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영화를 리메이크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작 영화가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 역사, 전쟁, 국제 관계, 미래 등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겠다는 의도다.

“처음 대인시장을 방문했을 때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소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영화를 제작하면서 대인시장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대인시장에서 느낀 것은 한 마디로 '삶의 현장'이었는데, '생존'을 다루는 제 영화에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분단국가 심각성 지적하고 싶었다”

SF형식... 상인·작가·교수 등 출연

내년 2~3월 완성... 새 영화 계획도

'역' 티저영상은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특별기획전 '백령도 525,600시간과의 인터뷰'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현재 영화 제작은 30% 수준에 와 있다. 시장 곳곳 마음에 드는 공간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설득해 공간을 섭외해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소품 등 세트 소재들도 광주 지인들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가을이 지나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신과 엔딩신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내년 2~3월이면 영화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역'이 끝나면 광주에서 또 다른 단편 영화 촬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화에 출연하는 전남대 장식원 교수(왼쪽)와 대인시장 공간을 빌려 만든 세트(오른쪽) 스틸 사진.



지난해 10월 광주공원 앞 광주전에 세워진 수상 무대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분위기를 즐겼다.

제4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올해도 전년에 수상무대(수상한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초청한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의 光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극·무용·건축가·문인·사진·국악·음악·영화인·미술·연예협회 등 모두 10개 협회 회원들이 꾸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최영희씨가 예술총감독을, 주홍씨가 미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꾸렸다.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6시부터는 '집들이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10개 협회가 광주전 둔치에 마련한 '집'에 손님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10~12일 광주전 둔치 일원

을 초대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별난 먹거리로 손님을 맞는다.

수상무대에서는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0일에는 마임, 임지형현대무용단의 공연, 국악 갈라 공연으로 구성된 '달빛콘서트'가 열리며 밤 11시까지 와인과 왈츠를 즐기는 행사가 마련된다.

11일에는 예선을 통과한 여섯 가족이 참여하는 동요 콘테스트와 클래식의 향연 공연이 열리며 밤 9시30분부터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생맥주를 무료로 마시며 영화를 감상하는 '수상한 극장'이 운영된다.

12일에는 지역 대중가수와 공연과 청소년 트로트 신인 가요제가 열리며 밤 9시30분부터는 디제잉 파티가 마지막 밤을 밝힌다.

행사 기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연극협회의 코스를 플레이와 연기 체험을 비롯해 조립식 모형블록을 이용한 공간 건축 체험, 거리 사진관, 시나무 꾸미기, 발레·현대·한국무용 배우기, 악기 체험, 난타 한마당, 천막극장, 미술치료, 효 노래방 등이다. 또 도자기와 솟대 만들기, 먹물 초상화, 황궁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밖에 예술가들이 내놓은 소장품 벼룩시장인 '수상한 장터',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쉬어가는 '수상한 텐트'도 운영한다. 단체 체험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자기로 굽는 한글

안경미전, 13일까지 제희갤러리



제희갤러리가 한글날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도예작가 안경미씨를 초대해 '도자로 굽는 한글'전을 연다.

안씨는 이번 전시에서 새로운 문화와 부딪치면서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감정들을 도자기에 녹여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우리 전통 도자 형식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녹아든 한글 서체를 담아 지극히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선사한다. 순백의 고운 빛깔을 머금은 도자기에 입혀진 한글의 조형성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손으로 빚고, 칼로 자르고, 유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도자기에 녹여낸 안씨의 삶 속 장면들을 엿볼 수도 있다. 영국에서 공부한 안씨는 러시아 국제 여성미술제(모스크바),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 한국 여성작가개인전 등을 비롯해 다수 국제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문의 062-222-93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뮤지컬 '내 마음의 품'으로 만나요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오늘 정기음악축제

전남대 음악교육학과(학과장 정애련) 정기음악축제가 8일 오후 전남대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열린다. 해마다 클래식과 뮤지컬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해온 음악교육학과가 이번엔 택한 작품은 국내 창작 뮤지컬 '내 마음의 품'이다.

전도연·이병현이 주연을 맡았던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내 마음의 품'은 강원도 산골학교 늦깎이 초등생 흥연과 새로 부임한 총각 선생님 동수, 그가 사랑하는 양수정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로맨틱 뮤지컬이다. '아가씨', '나비의 꿈', '나의 사랑 수정', '커피향' 등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다. 최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문중·이유진·최정혜·전형식씨 등이 출연한다.

또 클래식 곡으로는 '하늘 높은 곳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등으로 구성된 비발디의 '글로리아'를 합창곡으로 들려주며 김영재 곡 '아리랑연곡'을 해금합주로 선사한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